

누리호 3차 발사 중간 분석 결과

- 누리호 3차 발사는 높은 정밀도로 성공적으로 완수 -
- 초기 데이터 확인 결과 탑재위성 1기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지난 25일(목)에 수행한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밝혔다.

누리호는 5월 25일(목), 예정된 시간인 18시 24분 정각에 이륙하여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차세대소형위성 2호 분리, 큐브위성 분리를 수행하였다. 특히 누리호의 목표 고도 550km, 목표 투입 속도 7.58km/s에 정확히 일치(고도 550.6km, 속도 7.58km/s) 하며 높은 비행 정밀도를 확인하였다.

현재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탑재위성인 도요샷 3기도 지상국과의 교신을 완료하고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 중이다. 또한 KSAT3U(카이로스페이스)는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한 후 전력계 상태도 정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LUMIR-T1(루미르)은 위성 신호 수신 성공 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 중이다. 나머지 1기는 지상국을 통해 위성 신호 수신을 지속 시도 중이다.

다만, 도요샷 3호는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약 1~2달 간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설계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했으며, 해외 발사체에서도 발사 과정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 상 큐브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라며,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	책임자	과 장	김기석 (044-202-4640)
		담당자	서기관	김미미 (044-202-4644)